

# 친환경에너지 체험 해보세요

### 13~16일 DJ센터서 대한민국 녹색에너지전

### 온난화 실험·수소연료 자동차 시승 등 다양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에너지 페스티벌 '대한민국 녹색에너지 체험전'이 13~1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청소년 및 성인에게 미래의 그린에너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에너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체험전에서는 천연가스관, 전력관, 신재생에너지 절약관 등 에너지·자원별로 10개 전시관이 운영되며, 오감을 이용해 다채로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녹색에너지 체험존'에서는 차세대 미래에너지로 대표되는 '수소연료 전

지'와 '원자로 원리 모형'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즐거움 에너지 색션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특별체험관'을 통해 바람의 힘을 이용한 발전원리를 보여주는 풍력발전기를 전시하고, 지구온난화가 계속됐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지구 온난화 실험장치'를 통해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운다.

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전지자동차 및 전기를 이용한 전기자동차도 탑승해볼 수 있으며 태양전지 자동차를 이용한 자동차경주 등 체험행사도 다양하다.

이밖에 친환경 유리병 공예 만들기로 자원의 소중함과 재활용 가치를 일깨우고 천연 향수, 친환경 아크릴 수세미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한편 녹색 에너지의 느낌을 잘 살

### ■2010 대한민국 에너지 체험전 세부 프로그램

행복한 에너지	행사명	내용
녹색 에너지 체험존	원자로 원리모형 만들기	원자력을 이해하기 위한 체험
	수소연료 전지 만들기	미래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를 직접 만드는 행사
탐승 체험	태양전지 경비행기 만들기	태양전지 원리를 이해하고 풍차모형으로 제작
	수소연료 전지자동차 탑승체험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체험
즐거움 에너지	지가발전 녹색회양열차 탑승체험	관람객이 전기를 직접 생산해보고 이를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탑승해 보는 체험
	그린에너지 패밀리 행사	온실가스 줄이기 등 생활속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 홍보
신재생 에너지 특별 체험관	태양전지 우주왕복선 모형 만들기	태양에너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미래형 슬리커를 만드는 체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모듈	광합성 원리를 이용한 태양전지의 모듈을 보고 체험하는 전시
	풍력발전기	비람의 힘을 이용한 발전원리를 보여주는 전시
	지구온난화 실험장치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전시물

린 현장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에너지 위기 극복과 환경보호 실천 다짐에 대한 서약을 하던 추첨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등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체험전 홈페이지(www.energyshow.co.kr) 또는 '대한민국 녹색 에너지 체험전 사무국'(02-850-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기초적인 에너지 정보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기후변화 등 최신의 글로벌 에너지 이슈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회가 꾸러졌다"며 "미래 에너지 소비의 주체가 될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에게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光銀 ELD상품 역대 최고 수익

(지수연동예금)

### '더블찬스 36호' 14%~1인당 이자 222만원

지난해 4월 광주은행의 지수연동예금(ELD·Equity-Linked Deposit)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판매한 1년 만기 '더블찬스 정기예금 36호'의 금리가 지난 7일 14.006%로 확정돼 현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예금의 가입자는 모두 393명으로 가입금액은 총 53억6400만원이었으며, 확정금리로 계산할 경우 예금

이지만 7억5128만원이다.

가입자 1인 평균 예금액이 1582만원이어서 세금부과전 1인당 이자는 222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4년부터 광주은행이 판매한 더블찬스 정기예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이다. 종전 최고 수익은 더블찬스 정기예금 3호로 이자수익이 13.04%를 기록했다.

그러나 ELD상품은 주가지수 연동 상품이기 때문에 주가에 따라 수익 편차가 크다. 지금까지 광주은행에서

판매한 상품 가운데 이자수익이 0%로 원금만을 지급한 경우도 3차례 이른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은행 금리가 현재 3%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이같은 수익은 '대박'에 가깝다"고 말했다.

한편, ELD는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안전자산에, 나머지를 각종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형 상품이다. 원금 5000만원 한도에서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매장엔 벌써 수영복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초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5층 스포츠매장에 비키니 수영복을 선보였다. 올해는 오렌지·레드 등 원색계열의 화려한 스타일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10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초여름 같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자 5층 스포츠매장에 비키니 수영복을 선보였다. 올해는 오렌지·레드 등 원색계열의 화려한 스타일이 인기를 끌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글 이메일 주소 내년초부터 도입

내년 초부터 '한국'을 국가도메인으로 한 한글 인터넷 주소가 사용된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한글 이메일 도입도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어와 한글·영어 혼용 인터넷 도메인 외에 완전한 한글 주소도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국어(한글) 국가도메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자국어 인터넷 도메인은 지난해 10월 제36차 국제인터넷주소기구(ICANN) 서울 연례회의에서 도입이 확정돼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21개 국가가 신청했다. 연합뉴스

### 생산자 물가 6개월 연속 오름세

생산자물가가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오름폭은 9개월 만에 가장 컸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생산자물가는 한 달 전보다 0.8% 올랐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름세가 이어진

것으로,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지난해 7월(1.2%) 이후 가장 컸다.

농림수산물(1.2%) 오름 폭을 비롯해 공산품이 1.0%, 전력·수도·가스 0.2%, 서비스가 0.4% 올랐다.

농림수산물 중에서는 물오징어(40%), 고등어(21.4%), 조기(13.6%), 조개(12.9%) 등 수산품의 상승 폭이 컸다.

한은 물가통계팀 이병두 차장은 "지난달 날씨가 예년과 다른 데다 유가 상승 등으로 조업 일수와 어획량이 감소한 게 수산물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분석했다.

축산품도 돼지고기(8.9%)와 오리고기(8.1%) 위주로 상승했다. 곡물 가격은 산지 쌀값 하락(-1.5%)의 영향으로 1.1% 내렸다.

/연합뉴스



## 'IGM 지식클럽' 전성철 이사장 광주 특강

### 광주·전남 CEO대상... 13일 무등파크호텔

전 이사장은 이날 '아시아 시대와 한국 중소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세계 경제의 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옮겨온 변화를 한국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고 기회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또 G2(미국과 중국)가 가지는 경제적 의미와 한국기업이 아시아에서 이념적·종교적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 아시아시대 네가지 생존

비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 이사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조선일보 논설위원,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장, 세종대 경영대학원장 및 부총장 등을 지낸 국제변호사이자 경제칼럼니스트다.

IGM이 운영하는 'IGM 지식클럽'은 전국 1200여명의 CEO가 공부하는 동양 최대 최고경영자 프로 그룹이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부

산·대구·울산·대전·인천 등 7개 도시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한편, 최신 경영 트렌드, 경제 동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핫이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강현섭 사업자 축은행장, 이경태 이코노경제연구소장, 이훈 남도건설 대표이사, 정영준 현대도시가스 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문의 IGM지식클럽본부 02-2036-8351~3.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키워드 경제 돈으로 돈 버는 것은 '화폐경제'

경제는 크게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삼아 두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경우로 돈과 실물이 함께 움직이는 경제를 실물경제(real economy)라고 부른다. 실제 물건이나 물품이 거래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존재하는 부동산이나 기업의 생산활동, 개인의 노동과 소비, 유통업체의 판매행위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에 비해 순전히 돈만 이동하는 경우는 화폐경제(monetary economy), 또는 금융경제로 부른

다. 예컨대 은행에 예금하거나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팔 때는 돈만 움직인다. 예금자, 투자자, 금융기관 사이에 실물이 아닌 돈이 오가는 것이다.

금융이란 쉽게 말해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행위다. 금융경제에서는 더 많은 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자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예금, 대출, 투자활동이 성행한다. 어떤 사람이 100만원으로 TV를 살까 주식에 투자할까 망설인다고 하자, 이 사람은 돈을 실물경제 부문과 금융경제 부문 가운데 어느 쪽으로 투자할지 고민하는 투자자다.

과거에는 돈이 물물교환의 매개로 탄생했지만 현재는 화폐를 축으로 한 화폐경제가 실물경제를 능가하고 있다. 예를들어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생산과 설비, 고용을 늘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실물경제는 한가지 뜻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 실물경제는 금융경제와 상대되는 뜻만 아니라 이론경제와 대비해 현실경제를 뜻하는 말로 쓰일 때도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자료제공= (사)광주경제·문화공동체

## 효성에서 효성로하스와 함께 성장할 사업파트너를 모십니다!

"효성로하스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효성의 특강강연브랜드 효성로하스는**

세계적인 브랜드인 효성로하스는 국내외에서 100여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로하스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인력 관리

마케팅 전략

유통망 확대

신제품 개발

Your Future, OURS. NEVER END.